

칸트의 목적론에서 합목적성 개념*

- 유기체와 자연 전체의 체계에 대한 연구 -

박 필 배**

- I. 들어가는 말
- II. 자연의 목적론과 합목적성
- III. 외적 합목적성과 내적 합목적성
- IV. 나가는 말

• 국문초록

내적 합목적성과 외적 합목적성의 관계에 대한 주제는 『판단력비판』의 체계적 문제와의 맥락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체계 문제는 자유개념에서 자연개념으로의 이행 또는 자연개념으로부터 자유개념으로의 이행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가장 잘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칸트가 보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 이유는 체계 물음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산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사태에 따라, 즉 우리 지성의 특별한 성향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근원적 물음이기 때문이다.

목적론적 논의의 구조는 자연에 대한 외적인 반성과 도덕에 대한 내적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 2012 S1A5B5A07035298).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인 반성을 서로서로 교호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을 수행함에 있어 칸트는 객관적 합목적성의 원리를 자신의 비판적 행위이론, 즉 실천철학에서 추론해 내고 이것을 자연철학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즉 자연의 특수한 법칙들의 평가는 특히 외적인 합목적성의 형식을 반성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도덕적 목적론과 연결되어 있다. 그 이유는 외적인 합목적성에서 반성하는 판단력의 근거가 이론적 또는 결국엔 기술적-실천적인 이성에 있었고 그것으로 도덕적-실천적 법칙부여의 동기였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외적 합목적성의 형식 위에 가정적이며 전략적으로 정립된 행위 또는 목적-합리적인 행위는 칸트의 도덕원리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 주제어

목적론, 자연목적, 도덕목적, 내적 합목적성, 외적 합목적성, 유기체, 자연 이념

I. 들어가는 말

목적론은 서구의 정신문화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세계와 존재에 대한 이해방식이다. 그 대표적 주자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 과학혁명 이후 기계론적인 설명 방식이 서구의 자연과학과 일반인의 삶까지도 지배하게 되었다. 이제 목적론은 자연과학을 이해하기엔 적절하지 못했고 심지어 인간 삶에서도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여겨져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생물학이 자연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생물학에 여전히 남아있는 목적론적 설명방식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목적론적 설명 방식을 수용하는 생물학의 성공은 복잡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기계론적 설명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과거 자연과학의 설명 방식에서 배제되었던 목적론이 비록 포괄적이지는 않아도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세계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생물학의 성과에 힘입어 목적론 일반은 물론 과거의 목적론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생물철학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목적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현대 생물학과 생물철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과거의 목적론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현대 생물학에서 시도되는 목적론적 설명과 이전 철학사에서 전개되었던 목적론 사이에는 유사성과 더불어 차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¹⁾

국외에서 시작하여 국내에서도 유기체 내지 생명철학이라는 논의들을 통해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고, 환경 또는 생태계와 관련된 철학 저술들이 부각되는 시기에 부응하여, 칸트철학에서

1) 이와 관련된 사항은 박필배, 「칸트의 목적론적 자연관의 현재성 - 현대 생물학과 생물철학의 목적론적 입장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 54집,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자연과 생명 개념의 의미에 대한 논구와 이 생명 개념과 불가분하게 연관되어있는 자연의 유기체에 대한 칸트 입장의 정립은 자연철학과 역사철학,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철학과 생명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칸트의 유기체와 자연 개념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국내외의 수많은 문제와 함께 중요시되는 자연 문제와 생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 내지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칸트의 유기체 철학은 자연과 자유의 조화와 통일이라는 그의 철학적 체계 구상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단초를 우리는 유기체와 자연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인 합목적성(Zweckmäßigkei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칸트에 있어 합목적성 개념은 자연을 구성하는 지성의 합법칙성과 자연을 이념화하는 이성의 궁극목적성을 매개하여 전체 자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합목적성 개념은 칸트 철학 체계 전체를 이해하는 시금석을 마련해주고 있다. 특히 내적 합목적성과 외적 합목적성의 관계에 대한 주제는 『판단력비판』의 체계적 문제와의 맥락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체계 문제는 자유개념에서 자연개념으로의 이행 또는 자연개념으로부터 자유개념으로의 이행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가장 잘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칸트가 보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 이유는 체계에 대한 물음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산물이 있다는 사실을 고찰해 보면 그 자연의 사태에 따라, 즉 우리 지성의 특별한 성향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근원적 물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합목적성 개념을 칸트의 원전에 충실하게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칸트의 자연관이 갖는 특징을 드러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칸트의 생명체와 자연이 함축하는 목적론의 의미를 규명하고, 이 안에서 논의되는 합목적성의 개념을 유기체와 관련된 내적 합목적성과 자연 전체를 문제시하는 외적 합목적성으로 나누어 깊이 있게 논구해 봄으로써 유기체와 자연 전체를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칸트의 참된 모습을 제시하고, 과학혁명 이후 현대에서도 여전히 목적론이 과학에 형이상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체계로 이해하는데 유효한 개념적 틀이 될 수 있는 지를 고찰할 것이다.

II. 자연의 목적론과 합목적성

근대 자연 과학의 발달 덕분에 세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는 인과적 사고가 큰 성과를 거두었고 심지어는 지배적인 사고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목적론적인 사고는 그 중심적인 자리를 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칸트는 그의 철학에서 목적론에 중요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의 선험적 이성 비판에서도 목적 개념에 대한 사고는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목적론적 판단이 순전히 주관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주요 저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목적론적 사고는 『판단력 비판』에서 최고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판단력비판』에서 칸트는 합목적성의 개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구하고 있다. 즉, 그는 합목적성 개념을 주관적 합목적성과 객관적 합목적성 그리고 내적 합목적성과 외적 합목적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판단력비판』 전반부에서 칸트는 우리의 판단력을 위한 주관적인 합목적성을 선험적인 원리들에 따라 논구한다. 여기서 주관적 합목적성은 감각 자극을 통해 또는 취미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즉 주관적 합목적성은 ‘어떤 것은 편안하다’(etwas ist angenehm)와 같은 질료적 주관적 합목적성과 ‘어떤 것은 아름답다’(etwas ist schön)를 진술하는 형식적 주관적 합목적성으로 구분된다. 이 두 경우에 표상 또는 대상의 의미는 주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대상 자체의 소질은 주관적 합목적성에 대한 판단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지니지 못한다. 주관적 합목적성은 사물에

대한 개념에서 정립된 것이 아니라, 단지 감성적인 판단에만 관계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합목적성은 그의 자유에 있어서 구상력의 놀이(Spiel)에 관여하고 있다.²⁾

그러나 자연 목적을 고려할 경우, 합목적성은 주관적 합목적성이 아니라 객관적 합목적성이 문제시된다. 객관적 합목적성은 객관적이며 질료적으로 생각되고, 필연적으로 자연 목적의 개념을 수반한다. 칸트에 따르면 객관적 합목적성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 대한 다양한 사물의 연관을 매개로 해서만”,³⁾ 즉 개념 내지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합목적성은 단지 그 형식에 따른 것으로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합목적성은 선형적인 원리에 따라 규정된 단순한 표상에 관계하는 것으로 지성적(intellektuell) 합목적성이라 불리어진다.⁴⁾ 이 목적 없는 합목적성의 개념을 칸트는 『판단력비판』 §§10-17에서 자세하게 논구한다. 우리는 이 목적 없는 합목적성을 목적 지향적인 행위의 영역 밖에서 발견한다.

“우리가 합목적성의 형식의 원인들을 의지 속에서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 합목적성은 목적 없이 가능하다. (중략) 따라서 우리는 합목적성을 적어도 그 형식에 따라서, 또한 합목적성에 목적(목적적인 결합의 질료)을 근거로 놓지 않고서도 관찰할 수 있고, 대상을 그러나 오직 반성 작용을 통해서 주시할 수 있다.”⁵⁾

그에 반해 경험이 고려된 객관적 합목적성은 실재적이며, 이러한 합목적성은 목적의 개념에 의존해있다. 바로 이 객관적이며 질료적인 합목적성에서 우리는 자연 목적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

2) Kant, I., *Kritik der Urteilskraft*, Band V.(판단력비판), p.252.

3) Ibid., p.44.

4) Ibid., p.274.

5) Ibid., p.33.

과 작용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원인과 작용의 관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존립한다. 즉 작용이 다른 가능한 자연 본질의 기술(Kunst)을 위한 질료 내지 다른 원인의 합목적적인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경우, 다시 말하면 자연의 한 사물이 또 다른 사물에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기여한다면, 이때 그 자연 본질 또는 그 사물은 외적인 내지 상대적인 합목적성에 관여하게 된다. 외적인 합목적성은 인간에 대해서는 유익함(Nutzbarkeit)이고 모든 다른 자연 본질에 대해서는 이익(Zuträglichkeit)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내적인 합목적성에 있어서 작용은 직접적으로 기술산물(Kunstprodukt)로 이미 그 자체가 목적으로 간주된다. 내적인 합목적성은 대상의 완전성이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합목적성은 “대상의 현실성 자체가 목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 대상의 가능성과 결합되어있는 합목적성”⁶⁾이다. 내적인 합목적성과 외적인 합목적성의 구별은 추가적인 규정을 통해 명확하게 표출될 수 있다. 즉 어떤 것이 한 대상에 대해 유익하거나 이익이 되는 경우와, 그 대상 자체는 내적인 합목적성을 통해 특징지어지게 된다. 그에 따라 유용성과 이익에 대한 언급은 자연 목적에 관여하게 된다.

칸트는 반성적 판단력이 고안해 낸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목적 및 인과성 개념과 결부시킨다. 그러나 칸트는 유기체와 목적 인과성의 관계 해명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유기체가 갖는 목적 인과성을 유기체 및 그들 상호간의 작용 원리로 한정하지 않고 이를 위계적인 자연목적의 체계와 결부시키고 있다. 여기에 바로 칸트의 합목적성 개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 합목적성 개념의 내적이고 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칸트가 도입하고 적용한 이 목적 인과성 개념은 유기체의 내적 현상과 유기체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원리로서도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생명체 일반

6) Ibid., p.380.

은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적 내지는 목적지향적 행위에 대한 통일적이면서 체계적인 생명철학을 정초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 목적 인과성 개념 특히 유기체에서 자연 전체로의 목적론의 이행의 문제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는 칸트 철학의 전체를 보여줄 뿐 아니라, 자연의 모든 현상을 체계적이고 완성된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Ⅲ. 외적 합목적성과 내적 합목적성

칸트의 목적론은 유기체를 비롯한 복잡한 물질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연 전체에까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자연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면서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칸트의 내적 합목적성과 외적 합목적성에 따른 자연 이해가 여기서 대두된다. 또한 이 문제는 자연으로부터 자유로의 이행이라는 칸트 고유의 철학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행의 문제는 결국 자연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기에 유기체적 자연에서 자연 전체로의 이행도 같은 근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칸트는 기계론적인 과정을 목적 연관들 아래 포섭하고 유한한 인간적 목적 관계인 외적 목적론과 유기적 자연의 생명 원리인 내적 목적론을 구별하면서 목적론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칸트는 특히 『판단력비판』에서 합목적성에 대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객관적 합목적성이 대상의 유용성과 완전성에 따라 구분됨을 의미한다.

미적인 대상에 관련된 주관적 합목적성에 반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 합목적성은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즉 대상의 유용성인 외적인

합목적성과 대상의 완전성에 관계하는 내적인 합목적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용성과 완전성 개념은 목적론적 판단력의 분석론의 다음 구절에서는 상대적인 것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명확해 진다.

“우리가 작용을 직접적으로 기술산물로 보거나 단지 다른 가능한 자연존재자들의 기술을 위한 질료로 봄으로써, 즉 결과를 목적으로 보거나 또는 다른 원인들의 합목적적인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 봄으로써 일어난다. 후자의 합목적성은 (인간을 위한) 유용성, 또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위한) 유익성이라 일컫는 것으로, 단지 상대적인 것이다. 반면에 전자는 자연존재자의 내적 합목적성이다.”⁷⁾

따라서 칸트가 의미하는 외적인 합목적성은 자연의 세계에서 유기체들 간의 외적인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를 칸트는 어떤 자연물이 다른 생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인간에 대한 유용성을 함유한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자연의 목적이라고 판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칸트는 여러 예들을 통해 자연 사물들 간의 관계가 목적과 수단의 유익성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는 합목적성은 상대적인 합목적성이라고 본다. 따라서 유익성에 기초하는 객관적 합목적성은 사물들 그 자체의 객관적 합목적성은 아니다. 이러한 합목적성은 단지 우연적인 합목적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적 합목적성, 즉 한 사물의 다른 사물들에 대한 유익성은 오직 그 한 사물로부터 곧 바로든 우회적으로든 유익함을 얻은 것의 현존이 그 자신 자체로 자연의 목적이라는 전제 아래에서만 하나의 외적 자연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인 합목적성은 가설적 자연목적을 알려줄 뿐 절대적인 목적론적 판단을 정당화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보았던 완전성 개념을 함유한 내적 합목적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7) Ibid., p.279.

1. 내적 합목적성

칸트가 말하고 있는 내적 합목적성은 한 사물의 기원의 원인성을 자연의 기계성이 아니라 자연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특수한 자연의 산물에서 찾아지는 자연의 목적이다. 이때 독특한 자기 보존을 위한 합목적적인 체계를 지닌 유기체가 등장한다. 이러한 유기체가 지니는 자연의 목적을 칸트는 내적인 합목적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사물이 자신 스스로가(비록 이중적 의미이긴 하지만) 원인이자 결과라면 그 사물은 자연 목적으로서 현존한다.”⁸⁾

칸트는 여기에서 하나의 인과성이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 인과성은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자연의 순전한 개념과는 결합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때에 목적을 설정하지 않아도 모순 없이 생각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파악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칸트는 이것을 나무의 예를 통해서 설명한다.⁹⁾ 첫째로 한 그루의 나무는 자연법칙에 따라 다른 나무를 산출하는데, 이것은 나무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원인 이면서 또한 결과이고 그러한 재생산은 유로서 존재하게 한다. 둘째로, 한 그루의 나무는 개체로서도 자기 자신을 산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산출은 일종의 생식으로 기계적 법칙에 따른 양적 증대와는 구별된다. 셋째로, 나무의 부분은 다른 부분의 유지에 의존해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자기 자신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목적으로서의 유기체는 전체로부터 스스로를 형성하는, 유기화된 그리고 유기화하는 존재자인 것이다.

칸트는 이와 반대되는 예시로 시계의 톱니바퀴를 들고 있다.¹⁰⁾ 유기체

8) Ibid., p.286.

9) Ibid., p.286.

와 이 물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계의 경우 하나의 부분이 상실되거나, 애초에 결합이 있거나, 고장이 났을 때 스스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반면에 유기적 존재는 자기 안에 형성하는 힘을 소유하고, 그런 힘을 갖지 못한 물질에게 조차도 전달하여 유기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유기적 존재자는 한낱 기계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유기체의 내적 합목적성은 오로지 자체 속의 유기적 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리는 자연의 유기적 산물은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목적이면서 교호적으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기적 산물에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은 없고, 무목적적인 것이 없으며, 또 맹목적인 자연 기계성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칸트는 이러한 원리를 유기적 존재자들의 내적 합목적성을 판정하는 준칙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목적론적 원칙은 자연 목적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목적론적으로 생각했던 자연 사물들을 관찰할 실마리를 제공하기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아무리 기계적인 법칙에 따른 동물의 육체라 할지라도 그에 알맞은 물질을 모아 이것을 변양하여 형성하고, 마땅한 자리에 위치시키는 원인은 언제나 목적으로 판정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상대적이고 우연적인 외적 합목적성이 충분한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내적 합목적성은 자연의 궁극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당성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 준다. 자연 사물의 외적인 합목적적 관계들만을 본다면 우리는 인간이 왜 현존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칸트의 의도는 이성의 원리가 단지 이 맥락에서 주관적인 것으로서 준칙으로 종사한다는 것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원리가 규정적 판단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성적 판단력을 위한 것이고, 규제적일뿐 구성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학의 새로운 법칙적 질서를 기계성의 원

10) Ibid., p.292.

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유기체의 조직은, 자연의 내적목적으로서, 기예에 의한 유사한 현시의 모든 능력을 무한히 넘어간다. 자연설비들(바람, 비, 등등)의 목적들과의 관계가 원인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하나의 조건이어야 하는 한에서, 이 관계를 물리학은 전혀 현시할 수 없는 것이다.

2. 외적 합목적성

칸트에 따르면 목적론적인 세계개념과 자연개념은 자연의 합목적성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 목적론적 세계와 자연 전체에 대한 자연 합목적성의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와 그에 따른 성과는 문화 세계와 인간 삶의 전(全) 영역이 함께 논구되어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 이에 따라 어떻게 칸트는 자연의 목적론적 평가로부터 인간의 문화 세계의 논구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묻어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자연 합목적성 개념의 내적이며 외적인 사용에 따른 구분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판단력비판』 §§67에서 칸트는 자연목적의 개념, 즉 유기체적 자연존재의 내적인 합목적성의 형식의 과정을 “목적 규칙에 따른 체계인 자연 전체의 이념”¹¹⁾에까지 넓혀나간다. 칸트에 의해 드러난 연관 속에서 그러한 확장의 정당함은 고려된 자연이념의 구조에서 찾아져야만 한다. 자연이념의 내재적-사변적 구조는 그것의 원리적인 정립에 있어서 이미 감각세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서 칸트는 초감각적인 원리의 통일은 단지 어떤 자연 존재의 특별한 종에 대해서가 아니라 체계로서 자연 전체에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는 필연성을 이끌어낸다.¹²⁾

그러나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순수이성비판』에서도 자연을 목적들의 체계로 기획했다. 자연을 사물들의 단순한 응집체

11) Ibid., p.300.

12) Ibid., p.304.

가 아니라 목적들의 체계로 설정할 수 있기 위해선 자연 속에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것과 목적으로 간주되었던 것의 상하 질서의 원리로서 최상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최상의 목적은 더 이상 물리-자연적이거나 제약된 것일 수는 없다. 이러한 목적론적 판단력에 대한 내외적 합목적성은 『판단력비판』이전의 실천철학 저술인 『도덕형이상학정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¹³⁾ 여기서 칸트가 의도했던바 자연의 목적이 단지 보존과 번영을 의미하는 행복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유기체, 다시 말해 생명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조직된 존재자의 자연적 소질에서 우리가 원칙으로 상정하는 바는, 이런 존재자에게는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그것에게 가장 알맞은 것 외에는,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도 마주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성과 의지를 가진 한 존재자에게 있어 그것의 보존과 번영이, 한마디로 그것의 행복이 자연의 본래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자연은 이러한 자기의 의도의 실행자로 그 피조물의 이성을 선발하는 매우 나쁜 조처를 취한 셈이다. 왜냐하면 유기체가 이런 의도에서 실행해야만 할 모든 행위와 그것의 처신의 전체 규칙은 그에게, 일찍이 이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보다는, 본능에 의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지시될 수 있을 터이고, 그에 의해 저 보존과 번영의 목적도 훨씬 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최고선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이후 자연 전체의 체계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론을 칸트는 특히 『판단력 비판』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최상의 목적에서 목적론적인 세계 고찰은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상의 목적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목적론적 반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칸트는 목적을 논구함에 있어서

13) Kant, I.,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Band IV.(도덕형이상학정초) p.395.

목적은 원리적으로 형식과 현존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유기체를 주된 논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판단력 비판』에서 목적론적 고찰은 형식에 따른 목적 개념에 의해 이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목적론적 체계의 원리인 필연적인 무제약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근거에서 칸트는 어떻게 내적인 형식에 따른 목적의 평가에서 귀결적으로 자연 최후의 목적에 대한 문제를 이끄는 현존의 목적에 대한 물음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제시한다. 이러한 칸트의 논구는 형식과 현존에 따른 중요한 목적 구별의 근거, 즉 한편으로는 한 사물의 형식이 목적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사물의 현존도 목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한다.

그러나 현존에 따른 목적에 대한 대답은 실천적으로 정초된 형이상학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칸트의 기본 입장이다. 궁극 목적에 대한 물음을 포함하고 있는 현존의 목적에 대한 물음은 귀결적으로 형식에 따른 자연 목적의 고찰에서 비롯되나, 바로 그러한 물음은 인간의 실천 이성을 위해서만 필연적인 것이다. 세계 내에서 단순히 제약된 목적, 즉 수단적 목적이 무엇이며, 궁극 목적이 무엇인가하는 것이 인간의 실천 이성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적론적 반성의 변화, 다시 말해서 형식에 따른 목적에서 현존의 목적 결국엔 궁극 목적에 대한 물음을 이끄는 목적론적 사유의 전환은 결국 도덕적 목적론 위에 정초된 형이상학을 이끈다.

목적론적 판단력에 따르면, 특수한 법칙들의 경험 아래에서 자연은 특별한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는 외적이며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내적이며 단순히 도덕적인 법칙, 즉 의도적인 작용이나 목적 설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목적론적 논의의 구조는 자연에 대한 외적인 반성과 도덕에 대한 내적인 반성을 서로서로 교호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을 수행함에 있어 칸트는 객관적 합목적성의 원리를 자신의 비판적 행위이론, 즉 실천철학에서

추론해 내고 이것을 자연철학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즉 자연의 특수한 법칙들의 평가는 특히 외적인 합목적성의 형식을 반성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도덕적 목적론과 연결되어 있다. 그 이유는 외적인 합목적성에서 반성하는 판단력의 근거가 이론적 또는 결국엔 기술적-실천적인 이성에 있었고 그것으로 도덕적-실천적 법칙부여의 동기였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외적 합목적성의 형식 위에 가정적이며 전략적으로 정립된 행위 또는 목적-합리적인 행위는 칸트의 도덕원리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칸트에게는 저 상이한 설명방식과 평가방식을 서로서로 연관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를 통해 자연 통일의 이념이 자연적 기계론적 설명의 가능성을 도덕적 목적론적 평가의 가능성과 그 자체로 모순 없이 결합시키게 된다. 칸트는 목적론적 판단력의 〈변증론〉에서 (§§69-78) 자연에 대해 통용될만한 해석을 증명하려 노력한다.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이 통용될만한 해석은 한편에서는 지성의 구성적 원리와 그리고 범주들과 그 범주들의 합법칙적인 결합에 대한 논구(설명)의 근거에서만 가능하다. 예로 인과적이며 기계론적인 법칙인 원인과 작용 관계가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의 규제적 원리에 대한 논구가 필요하다. 예로 인식에 도움을 주는 원칙들인 자연의 이질성과 특수성 그리고 지속성 더 나아가 반성하는 판단력의 원리인 자연 질서와 통일의 이념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자유개념으로부터 자연개념으로의 이행, 또는 자연개념으로부터 자유개념으로의 이행을 확신할만하게 이끌려는 과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¹⁴⁾

실제로 칸트에 따르면 목적론은 자연과학의 완전한 이론 형성이 아니라, 단지 신 증명론을 위한 예비학에 불과하다.¹⁵⁾ 우리의 삶에서 모든

14)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구는 박필배, 「자연과 문화 사이의 갈등, 칸트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칸트연구』 제17집, 한국칸트학회편, 철학과현실사, 157-184 쪽 참고.

15) Kant, I.,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Band IV. (도덕형이상학정초) p.366.

물음들은 이것이 실천적인 물음이든, 신 증명론적인 물음이든, 아니면 역사적인 물음이든 간에 판단력의 반성성과를 근거로 설정된다. 여기서 결국 인식 체계 속에서 철학적 분과들의 종결적인 분류가 주어질 수 있다. 우리는 특정한 대상들에 관한 우리의 개별적인 인식들을 자연 전체에 대한 하나의 앎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가하고 칸트는 묻는다. 그러한 자연의 앎은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생각될 수 있기 위해선 우리가 자연 목적들의 상승적 계열을 형성하면서 훌륭한 근거 위에 자연의 질서를 설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상승적 계열의 최후의 목표는 최후의 목적, 즉 문화 또는 창조의 궁극 목적, 다시 말하면 ‘도덕 법칙 아래의 인간’으로 특징지어진다. 결국 우리가 자연의 최후의 목적 또는 궁극 목적을 명명할 수 있다면, 자연 산물들 상호간의 다양한 연관들을 하나의 최고의 점에 관련시키고, 그를 통해 개별적인 대상들 사이의 연관을 설정할 가능성이 주어진다. 그러나 칸트의 이러한 입장은 크게 부각되지도 않았고,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에서 필연적으로 이끌어지는 유기체와 자연 전체 간의 관계 개념은 칸트철학의 계승자 내지는 이론가 사이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논의되어지지도 않았다. 여기에 칸트의 합목적성 개념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일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IV. 나가는 말

자연의 목적론적 이념은 자연은 어떤 일도 맹목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관념을 포함하며, 그리고 자연의 계획은 자연이 창조한 것은 완전한 발전을 성취하도록 한다는 관념을 함축한다. 자연이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자연의 목적은 무엇인가?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문화, 즉 도덕성을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문화의 주체로 등장한 자연은 기계적 자연의 체계가 아니라, 반성적 판단력의 대상이 되는 유기적 전체로서의 자연이

며, 현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이념으로서의 자연이다.

칸트에 따르면, 생명체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한 근원이고 출발점이 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지역적 특수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칸트의 자연철학적 구상들은 창조의 최종 목표로서의 인간으로 소급하는 보편목적론을 피하면서 목적론적 자연관의 방향을 제시한다. 칸트는 목적론에 대한 논의에 다음 두 가지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첫째, 그는 기계론적인 과정이 목적적 관계에 포섭된다는 것을 보였고, 둘째, 유한한 인간의 목적 관계를 다루는 외적 목적론과 유기적 자연의 생명 원리를 다루는 내적 목적론을 구별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인과적 설명이 지배하는 자연과학에서도 목적론적 설명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목적론은 기계적 인과론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중요한 과학적 방법으로서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칸트는 유기체와 관련해서는 외적 합목적성에 근거한 외재적 목적론이 아닌 내적 합목적성에 따른 내재적 목적론을 주장한다. 외재적 목적론에서는 주체의 의도가 객체의 외부로부터 주어지지만, 내재적 목적론에서는 목적이 존재의 내재적 원리로서 존재한다. 이는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합목적성 개념의 이해가 필수적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칸트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여기서 유기체를 포함한 자연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칸트의 의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체계적 완성이라는 칸트의 의무감에도 합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철학의 체계는 한 학자의 임의적인 해석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자연은 본질상 체계적이고 학문은 단지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칸트의 근본 입장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칸트는 합목적성 개념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로 제시한다.

• 참고문헌

<자료>

Kant, I., *Kants gesammelte Schriften, hrsg. von der Königlich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d. I-XXII, von der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d. XXIII-XXIV, Berlin 1910-1966.

_____, *Kritik der reinen Vernunft*, Band III/IV. (순수이성비판 B/A).

_____,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Band V.(실천이성비판).

_____,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Band IV.(도덕형이상학정초).

_____, *Kritik der Urteilskraft*, Band V.(판단력비판).

_____, *Erste Einleitung in die Kritik der Urteilskraft*, Band XX.(판단력비판 제1서론).

<연구논저>

김 진. 『칸트와 생태사상』, 철학과현실사, 2003.

박찬국. 「목적론적 자연관에 대한 재검토」, 『시대와 철학』, 2004.

박필배. 「자연과 문화 사이의 갈등, 칸트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칸트연구』 제17집, 한국칸트학회편, 철학과현실사, 2006.

_____. 「칸트의 목적론적 자연관의 현재성 - 현대 생물학과 생물철학의 목적론적 입장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 54집,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14.

Düsing, K. “Das Problem des höchsten Gutes in Kants praktischer Philosophie,” *Kant-Studien* 62, 1971.

_____. “Teleologie und natürlicher Weltbegriff,” *Neue Hefte für*

Philosophie 20, 1981.

_____. “Die Teleologie in Kants Weltbegriff,” in: Kant-Studien Erg. 96, 1986.

_____. “Naturteleologie und Metaphysik bei Kant und Hegel,” in: Hegel und die Kritik der Urteilskraft(hrsg. von Fulda, H-F. u.a.) Stuttgart, 1990.

Fulda, H-F. “Von der äußeren Teleologie zur inneren.” In Der Begriff als die Wahrheit. Zum Anspruch der Hegelschen “Subjektiven Logik,” Paderborn, 2003.

Hartmann, N. *Teleologisches Denken*, Berlin, 1951.

Pleines, J.-E. (hrsg.) *Zum teleologischen Argument in der Philosophie*, Königshausen und Neumann. Würzburg, 1991.

_____. *Teleologie*, Königshausen und Neumann. Würzburg, 1994.

Rinaldi, G. “Innere und äußere Teleologie bei Kant und Hegel.” In Hegel und das mechanistische Weltbild, hrsg. v. R. Wahsner, Frankfurt am Main, 2005.

Spaemann, R. u. Löw, R. *Natürliche Ziele. Geschichte und Wiederentdeckung des teleologischen Denkens*, Stuttgart, 2005.

The Concept of Teleonomy in Immanuel Kant's Idea of Teleology

— A Study of the Pattern of Organism and
the Whole Nature —

Park Phil-Bae*

Kant's views on organisms are at the heart of his philosophical system that pursued the harmonization and the unity of nature and freedom. We can find a clue from Kant's concept of teleonomy (*Zweckmäßigkeit*) – a key Kantian concept for the study of organism and nature. Kant's concept of teleonomy mediates “principality” of the intellect that constitutes nature and “ultimate purposiveness” of reason that ideologizes nature and thus performs an important role of systematically figuring out the whole nature.

The idea of the relation between inner teleonomy and outer teleonomy are well manifested in the context of the systematic issues of the *Critique of Judgment*. The issues of the system can find their clues in the process from the concept of freedom to that of nature or from the concept of nature to that of freedom. For Kant, these processes are the necessary steps because the question of a system is not made arbitrarily but is a fundamental one that is based on the contemplation of the existence of natural outcome and on the special characters of our intellect.

The structure of teleological debates is based on the reciprocity between the outer contemplation on nature and the inner reflection on morality.

* Assistant Professor,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Nevertheless, in carrying out the critique of teleological judgment, Kant deduces the principle of objective teleonomy from his own critical theory of behavior, i.e., practical philosophy, and applies to his philosophy of nature. The evaluation of the special principles in nature is closely related to moral teleology accompanied by the reflection on the outer teleonomy. It is because the ground for the judgement of reflection in the realm of outer teleonomy lies in the theoretical and, ultimately, technological-practical reason and could become the motive for the imposing moral- practical laws.

Key words: Organism, teleology, natural teleology,
moral teleology, inner teleonomy, outer teleonomy

필자 E-Mail: parkphb@kornet.net

투고일: 2015년 7월 6일 / 심사완료일: 2015년 7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5일